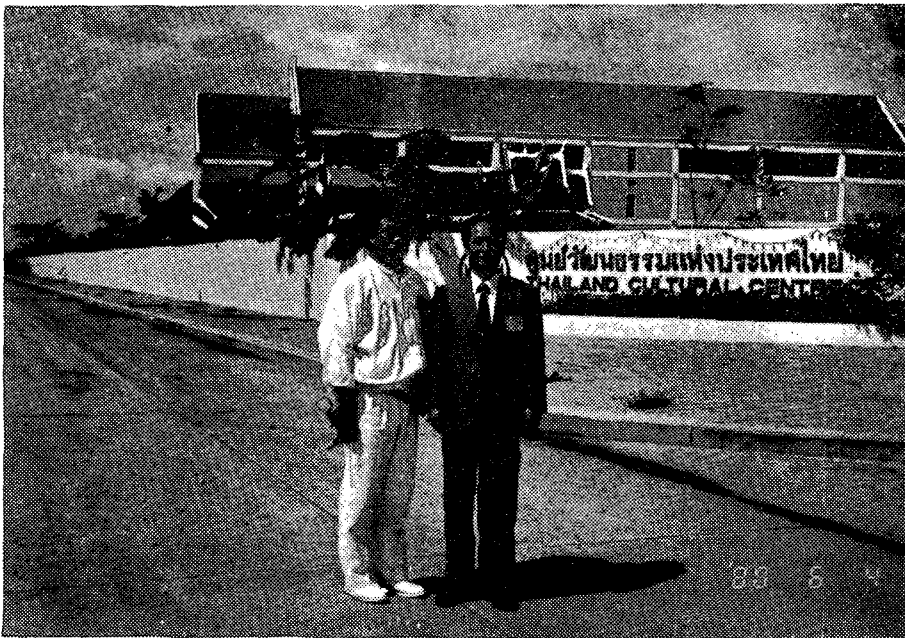


“世界環境의 날”

지난 6월 15일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는 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의 주관으로 기념행사가 있었다. (本報 6월 15일자 참조) 각국의 유명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베풀어진 기념식에서 「톨바」 UNEP 사무총장이 세계의 모든 환경인과 각국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도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톨바」총장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해 “세계는 지금 유해가스로 인한 온실효과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가 곧 세계 안녕에 크나큰 위협이 되므로 세계인이 공동연구 및 노력을 기울여 환경오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신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그의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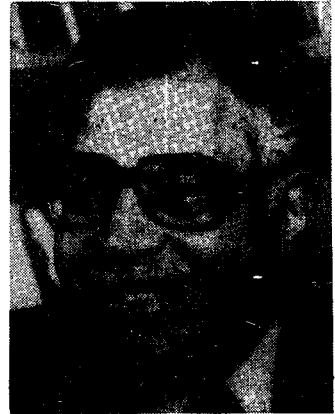
다음의 글은 UNEP 사무총장의 메시지와 또 당시 행사중 하나였던 「환경보전 노래 페스티벌」참가곡, 각종 사진도 더불어 게재한다

- 편집자註 -



우리나라 대표로 UNEP 아·태지역 위원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한 本協會 최홍식 事務總長(右). 그 옆이 가수 김경남씨.

UNEP 「톨바」사무총장 메세지



화학물질이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비자, 가게와 슈퍼마켓 등에서 aerosol 사용을 억제케 하고, aerosol 사용과 관련한 산업체를 환경보전에 앞장서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

aerosol은 냉장에서부터 소방활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체는 그들대로 안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몬트리올에서 유럽경제 공동체(EEC)와 62 개국이 참여하여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화학물질사용 감축협정을 체결했다.

UN 국 산하기구이며 과학단체이기도 한 UNEP는 환경보전을 위한 세계차원의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실은 올해 세계환경의 날에 보도된 기쁜소식이다. 이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 UN 국 산하기구이고 과학단체인 UNEP가 기후변화와 온실효과에 대해 새롭게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시급한 문제이다. 지구기온상승은 대기중의 탄산가스과 다른 대기오염물질을 생성시키는 원인이 되고, 인간생활에 커다란 위협을 준다. 세계의 과학자들은 온실효과로 인해 앞으로 30~40년안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1.5~4.5도 높아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기온상승은 해수면이 높아지는데 따른 저지대의 침수 원인이 된다.

지구의 거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수면 60km내에 살고있다. 해수면이 1km 증가할 때, 방글라데시에서 15만명이, 이집트에서는 10만명이 살 터전을 잃게 되고, 유럽의 삼각주지대와 북아메리카, 열대바다에 있는 섬들이 모두 침수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해수면 1m증가에 대해 해수면을 보호하는 비용이 대략 100만 달러가 든다.

농업은 영향력을 재는 철도이다. 어떤 지역은 가뭄이 들고 사막화되고; 또 다른 지역은 홍수가 나 토양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의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안녕에 대해 기후변화

“
지난해 몬트리올에서 유럽경제 공동체(EEC)와 62 개국이 참여하여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화학물질사용 감축협정을 체결했다.
”



가 주는 암시는 의미심장한 것이다. 그러나 지구 기후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 15년전부터 과학자들이 각지역에서 기후가 따뜻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언을 했었다. 그러나 이제와서 행동에 옮기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기는 하다.— 우리는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주원인인 대기의 온실효과 — 탄산가스 — 의 배출을 빠른 시기안에 줄일 확실한 전망이 없다. 이는 온실효과의 원인물질이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화력 발전소나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곧 계수기(counter measure)를 만들기 시작할 필요가 있고 ;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2가지는 ; 첫째, 가스배출의 증가를 통제하는 정책의 입안과 확대이고 이와함께 증가하는 온도를 낮추는 일이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처할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

1. 정부와 산업체 지도자, 학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 더 많은 국제적인 과학연구가 확대되어야 하고,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2. 정부와 산업협력체는 발전소, 산업체, 운송수단이 가스배출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3. 에너지 보호와 신자원개발, 에너지 재활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기기가 풍부해야 한다.
4. 해수면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열대림 파괴가 식량소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6. 더 많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7. 문제에 관련된 국제협약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협약(global cooperation)에 대한 기획로 파악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제적으로 관련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기후에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믿는다.

모든 동양인들은 결정권자가 확실한 행동을 취하고, 그렇게 할 시기를 확정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가스배출의 증가를 통제하는
정책의 입안과 확대이고 이와
함께 증가하는 온도를 낮추는
일이다.

”

UNEP 의장
Dr. Mostafa K. Tolba

岬·太지역 환경의 노래 경연대회 참가곡



환경보전노래 페스티발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참가 가수들

1. 오스트렐리아

- 작곡가 1가수 : 브렌다 리디아 (Brenda Liddiard)
- 주최 : Rainforest information Centre.

“For the Rive”는 리디아가 타스마니아에서 플랭크린 강 유역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1983년에 작곡했다.

“For the River”

*The mist on the river, the mountains and sky
The wide ripples shimmer as the boats wander by,
The whole world is watching the wilderness war,
But we don't have to ask, what are we fighting for.*

2. 방글라데시

- 작곡가 : 압둘 라티프 (Abdul Latif)
- 가 수 : 사림 (S.M.Salim)
- 주최 : Society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Environment (SCONE)

“Environmental Song”

*To build town, village, society or state
We need a beautiful and healthy environment.
Good environment increases the span of life.
Green vegetation and living beings,
All are needed for balancing ecology.
This should be known to everybody.*

3. 대 만

- 작곡가 : 구지안팡 (Gu Jianfen)
- 가 수 : 키우유 (Qiu Yu)
- 주 최 : Chinese Society of Environmental Science.

키우유는 여러번 노래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인기가수이다.

“My White Swan”

*Sunlight
Casts on your long, long plumes
A riot of colour
Leisurely, elegantly, towards the horizon
The mountains, trees, clouds
The mountain village covered with white snow
Are all lying
Under your wings*

*Leisurely, elegantly
Moonlight
Drapes over your long white feathers
A nightgown
Leisurely, quietly, by the lake
The mountains, trees, clouds
The mountain village with glimmering lights
Are all lying
Under your wings
Leisurely, quietly.*

4. 홍콩

- 작곡가/가수 : 아비쿠신만 (Ivy Ku Sin Man)
 - 주최 : Environmental Pollution Advisory Committee (EPCOM)
- 아비쿠신만은 중국어, 영어, 불어로 많은 노래를 작곡했고, 최근에 가수로 데뷔했다.

*"A Clearer Sky"
Let me hear the voice of the wind
Let me feel the heart of nature
Let me breath the freshness of the virgin air...
Come around and hold our hands
Come and feel the pulse of nature
You know that we should come together
To keep our place a wonderland...*

5. 인도

- 작곡가/가수 : 칸시암 새라니 (Ghanshyam Sailani)
- 주최 : World Wildlife Fund-India and INTACH

6. 인도네시아

- 작곡가 : 에지 페들리 (Egi Fedly)
- 가수 : 에지페들리/라트나 페들리 (Egi Fedly/Ratna kartinawati Soeparyadi Fedly)

에지와 라트나는 부부팀이다. 에지페들리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 1회 국내음악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그들은 악단을 갖고 있고, 자연을 주제로 음악을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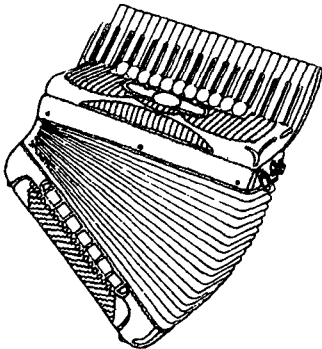
*"Pathway"
A challenge for nature lovers
Reach the hills, mountains and steep ravine
If we come to our destination enjoy the beauty
Of God's creation
The clear river water flows calmly
Rippling along tirelessly
Forest animal welcome you
With the special message to love the forest.*

7. 일본

- 작곡가 : 슈우코 에마/요시나오 나카다 (Shouko Ema/Yoshinao Nakada)
- 가수 : 타에코 마츄시타 (Taeko Matsushita)
- 주최 : Japan Environment

Association

일본과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한 티에코 마츄시타는 1976년 수만국제콩쿨과 1977년 제노바국제콩쿨에서 입상한 바 있다. 또, 그녀는 비엔나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를 여러 번 부른적이 있다.



*"Beautiful Memories of Summer Days"
When summer comes, I always remember the beautiful
Oze highland marshes in a far away mountain sky
A gentle shadow appears in a misty small path
Ah, here blooms marsh flower,
Blooming at the watershed as if it were dreaming
Then Oze highland marshes gradually disappear
In the purple dusk, in a far away mountain sky
When summer comes, I always remember the small trips
We made in the countryside, feeling comfortable highland breeze*

8. 한 국

- 작곡가: 김인배
 - 가 수: 김경남
 - 주 최: 환경청 / (사)환경보전협회
- 김경남은 1974년 한국가요경연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다. 김인배는 1958년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입단했고 오아시스레코드사, 지구레코드사와 전속 계약을 했다.

“고마운 친구”

1. 푸른산 바라보면 마음도 푸르고
맑은물 바라보면 마음도 맑아라
언제나 우리곁에 함께 하면서
건강하고 복된생활 베풀어주는
환경은 다정하고 고마운 친구
내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리라.
2. 푸른들 바라보면 마음도 푸르고
맑은공기 마시면 마음도 맑아라
언제나 슬기롭게 일깨워주며
아름답고 밝은생활 베풀어주는
환경은 소중한고 고마운 친구
내정성 다바쳐서 사랑하리라.

9. 말레이시아

- 작곡가: 오스만 마스리/줄키프리 마헛
(Othman Masri/zulkifli Mahat)

- 가 수: 줄키프리 마헛 (Zulkifli Mahat)
- 주 최: Malayan Nature Society

“Nature”

*The existence is only ephemeral
The heritage called Nature, should be left
Untouched and unstained
The glory and essence of Nature, to be
Shared equally by one and all
A world, so breathtakingly pure.*

10. 네 팔

- 작곡가: 샤키티 발라브/라젠드라 샤프마
(Shakti Ballar/Rajendra Sharma(Rabin))
- 가 수: 라젠드라 샤프마 (라빈)

(Rajendra Sharma(Rabin))

- 주 최: King Mahendra Trust For Nature Conservation

샤키티 발라브는 로얄네팔 아카데미에서 가수겸 작곡가로 공부하고 있다. 라젠드라 샤프마(라빈)는 네팔리에서 40곡의 현대음악을 녹음했었고 음악과 방송을 통해서 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One Single World”

*Soaring structures and industries,
Are not development alon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must go hand in hand
What happens tomorrow,
If vales and hills are shorn?
Make up your minds so there won't be
Another cause to mourn!!!*

11. 필리핀

- 작곡가/가수: 갈리 그라나다 (Gary Granada)
- 주 최: Solid Alliance for Vigilant Environmentalist (SAVE)

“Earthkeeper”

*For the sake of the future
Of our daughters and sons
In the name of all-creatures
Give survival a chance*

12. 싱가포르

- 작곡가: 바버스 콘데스, 림 시아우충
(Babes Condes, Lim Sauw Chong)
- 가 수: 림 시아우 충 (Lim Siauw Chong)
- 주 최: Ministry of the Environment

시아우충은 싱가포르에서 첫째가는 TV 프로듀

“River of Life”

*River of Life
Beaming new promises
River of Life
Sparkling along, our shores
River of Life
Reflect the strength within us
You're the link to our bright new future
A friend to us all
River of Life*

서, 영화감독, 피아니스트, 사진작가이다.
그의 서정시인 "Rive of life"는 싱가포르의 필리피나에 상주하는 콘테스에 의해 작곡되었다.

13. 스리랑카

○작곡가/가수 : 일레네 나라니 라나싱테
(Irene Nalani Ranasinghe)
○주 최 : Control Environmental
Authority

라나싱테는 라디오나 TV 아티스트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음악선생님이기도 하다.

"Environment is calling you"
*Ye men of boundless desire and greed
Let's not forget
The world depends on water, air and soil
In mountains, forests and streams
In the land you cultivate
In villages, towns and settlements
It is your bounden duty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 environment calls for
Praying for protection
You will be protected
By the environment you protect*

14. 태 국

○작곡가 : 프루티손 수미트라/베니카 빌
(Pruthorn Sumitra/Venika Vil)
○가 수 : 베니카 빌 (Venika Vil)
○주 최 : Siam Environment Club/
Chulalongkorn University

베니카 빌은 1986년 태국가요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The Barren Land"
*I've come to know there's really so much more
That we could try to save
Won't you help me please
They're our birds, our trees
Will you stand and watch till they're gone
Turn around and face the horror and the desolation
Will you wait until the tears begin to fall
It's time to see it naturally
The life we give returns for free
Help me save the world, it's for you and me*
"Environment and Life"

○작곡가 : 차이렐 봉키앗카쥬른 (Chairat Vongkiatkajorn)

○가 수 : 이시리야 쿠프라서엣트 (Isiriya Kuprasert)

○주 최 : Siam Environment club,
Chulalongkorn University

이시리아는 1985년 태국 현대음악콘테스트 최우수상을 받았다.

15. 베트남

○작곡가 : 반중 (Van Dzung)

○튜이란 (Thuy Lan)

○주 최 :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반중과 튜이란을 베트남 라디오의 성우로 활약하고 있다.

"For a Green Planet"
*A little seed on fertile Land
Needs sunrays and fresh raindrops
Our Planet needs the whole green
Over and over mountains, sea and forest
Much fertile soil a big river brings
And our endless sea and forests
Full of green bring life to us*

특별출연자 : Ullg Sigar (인도네시아)

Peter W. Cooper (미국/홍콩)



※ 다음호에는 가수
김경남氏의 「환경보전
노래 페스티벌」 참가 견
문기를 실을 예정이다

- 편집자

UNEP 亞·太지역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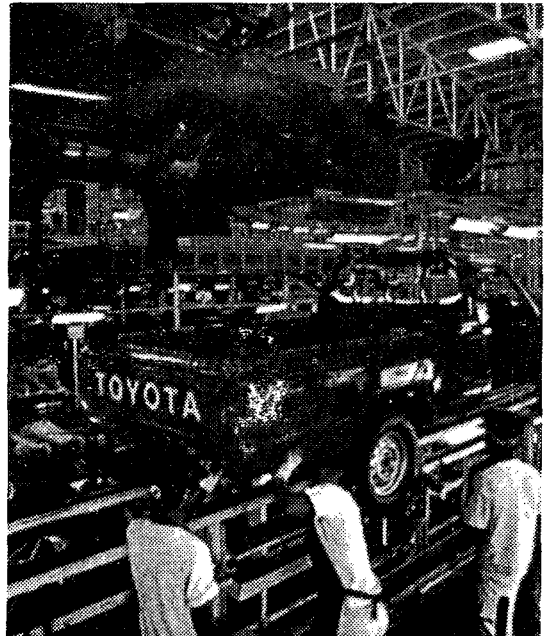
泰 國

최근 태국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가장 정치적인 안정을 구가하고 있는 태국은 신중한 공업정책을 추진 우리나라 · 홍콩 · 대만 · 싱가포르의 뒤를 쫓는 새로운 ICS (신흥공업국)으로 부상 '86년 이래 연 7%대의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UNEP 亞太지역위원회 사무소가 수도 방콕에 있을 정도로 아시아 · 태평양 환경보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H.M태국 왕비는 환경오염방지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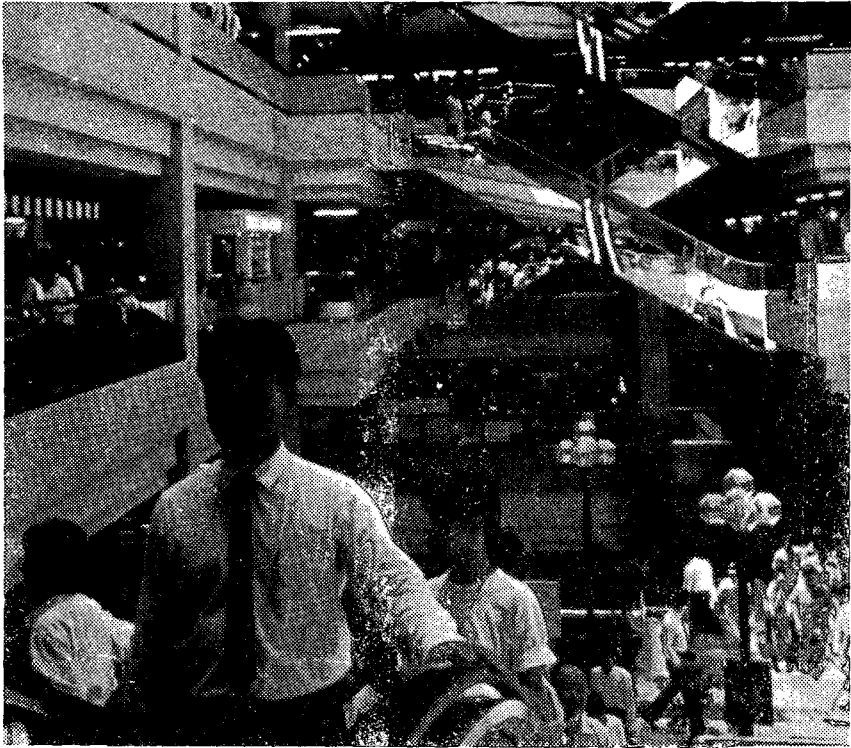
Kingdom of Thailand		
면적	적	51만 4,000km ²
인구	구	5,118만명 (85년)
수도	도	방콕 (Bangkok, 인구 525만명)
주요민족	민	타이족·라오족이 대부분이며, 중국인은 약 400만명
언어	어	공용어는 타이어
종교	교	95%가 불교 (소승불교)
정치체제	체	입헌군주제
헌법	법	1978년 12월 제정.
원수	수	국왕·푸미볼·아둘라멧 (Bhumibol Adulyadej)
G N P		372억달러 (85년)
1인당GNP		746달러



신·구가 혼재하는 태국의 수도 방콕



일본 도요다 태국 현지 자동차 공장



거대한 쇼핑센타는 태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고 있다.



태국전통의 수상시장